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정부는 지난 12월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입각하여 농업·농촌이 FTA, DDA 협상, 쌀 협상 등에 따른 개방 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01년 이후 준비해 온 작업과 '02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바탕으로 '03년 5월 농정기획단, 8월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하고, 9개 분야, 180여개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중점 검토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간 의견 조정을 거쳐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3년마다 점검·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가운데 축산·사료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정리하였다.

- 편집자주

1. 한국 축산업의 위치

'02년 농림업 생산액 33조4천억원중 축산업 생산액은 9조1천억원(27%)으로, 생산액 기준 10대 주요품목의 대부분을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2002년까지 축산업이 농림업 생산액의 약 46%를 담당, 연관 산업을 포함하면 향후 축산 경제의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

199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었던 축산농가는 '90년대 중반 이후 축산물의 수입개방, IMF 경제위기 등으로 크게 감소하여 2000년 현재, 전체 농업인구 가운데 축산농가의 비중은 5.2%에 해당된다. 축산농가는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주가 많고 전업화가 뚜렷한 편이다. '02년 말 현재 축산전업농 1만 3,000호가 전체 사육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2. 여건 변화 및 전망

DDA 협상, FTA 확대 등으로 축산물 시장의 개방

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특히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영향이 클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축산물 안전성, 환경, 가축 방역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KREI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1인당 육류소비량은 39.2kg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0년 이후 교역이 증대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악성가축질병이 빈발하고 있어 가축 질병의 사전 예방적 방역체제 구축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육규모 확대에 따른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EU를 중심으로 동물복지의 국제 규범화, 교역조건화의 움직임이 있어 환경문제나 동물 복지에 관한 대응이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3. 2013년 축산업의 비전

□ 생산·소득 전망

축산업의 규모화가 계속되어 '13년에는 축산전업농 2만호가 사육의 85%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축산전업농의 평균소득은 1억8백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의 경우 9,000호의 농가가 사육의 70%를 담당, 전업농 평균소득은 1억5,400만원으로 증가할 것이며, 돼지는 4,000호가 사육 90%를 담당 향후 1억1,300만원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된다. 닭은 전업농 2,000호가 사육의 85%를 담당, 산란계의 경우 9,600만원, 육계의 경우 8,100만원으로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젓소는 전업농 5천호가 사육의

90%를 담당, 전업농의 평균소득은 9,700만원까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 유통구조

LPC(Livestock Processing Complex)가 중심이 되어 계열화 및 부분육·포장육 유통이 진전되고, 고품질·고부가가치 축산물 중심으로 지역브랜드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2003년 현재 소 8%, 돼지 16%인 LPC 도축물량이 2013년에는 각각 25%, 30%로 증가할 전망이다.

□ 친환경 축산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 등으로 환경 친화형 축산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데, 직불제를 통한 가축의 친환경 사육비중은 축종별 사육의 20%까지 확대되고, 유기축산물도 전체의 1%까지 확대 생산될 전망이다.

4. 향후 축산정책의 기본방향(표1)

5. 주요 추진 대책

□ 고품질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지역축협, 영농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 경영체 조직하고,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경영지도 컨설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브랜드경영체와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우수업체에겐 시상 및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또 우수브랜드대상으로 생산 이력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평가 후 확대방안을 강구

테마	추진개념	주요 프로젝트	비전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가 경쟁력 제고의 전략적 축 • 시설개선, 가축개량 등 기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중심의 전업경영체 육성 • 등급화 등 품질관리 강화 • 가축개량, 사양관리 효율화 • 새로운 요리개발 및 수출상품화 • 소비촉진등 국산 수요기반 확충 	環 境 · 人 間 · 動 物 이 調 和 되 는 지 속 가 능 한 축 산 업 육 성
환경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 등 환경개선 인센티브 강화 • 축산업과 농경지의 자연순환 체계구축 • 동물복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유기축산직불제 도입·확대 • 초지·사료포 기반 대폭 확대 • 농경지 액비살포 확대 • 분뇨 자원화시설 지원 • 오염부하를 고려한 사육 제한 • 동물복지 제도화 및 직불제 추진 	
소비자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에서 식탁까지 유헤요소 확인·추적·제거 • 소비자 시장평가가 가능토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단계 HACCP 체계 확립 • 선진 위생제도 도입·정착 • 생산이력제(Traceability) 도입 • 단계별 위해 모니터링 강화 • 소비자 시장평가 제도화 • 원산지 등 공정시장질서 확립 	
예방적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지방의 역할이 강화되는 예방적 방역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검역 강화, 악성질병 유입차단 • 민간 및 지방방역 체계화 •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구축 • 축종별·질병별 긴급방역 체계화 	
자율수급 경영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의 자조금 단체를 통한 수급관리 • 경영안정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자조금단체 육성(8축종) • 자조금단체 수급관리기능 정착 • 수급관리 개입원칙 정립 • 가축공제 확대개편, 재해지원현실화 	

◆ 정부: 환경, 안전성, 브랜드, 지밀외 등 경쟁요소를 중심으로 지원
 ◆ 농가: 자율과장의로 시장기능에 따라 자기혁신에 의해 생산성 향상

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수브랜드의 인증기준을 설정하여 민간 중심의 축산물브랜드인증위원회를 구성, 우수브랜드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한우

- 전업농이 중심이 되는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
- 이력추적시스템등 신뢰확보 소비기반 구축

▷ 돼지

- 브랜드 중심의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 양돈업 육성
- 비선호부위 소비촉진 홍보로 균형적 소비 유도

▷ 닭

- 계열화업체 중심의 브랜드 닭고기 고품질화 추진
- 종계장 · 부화장 질병예방 강화로 생산성 향상

▷ 젖소

- 집유 및 가격결정체제 개편, 우유 수급 안정
- 구분집유, 가격 차등화 등을 통한 원유 품질 향상

▷ 오리

- 종오리 검정등 개량 지원 확대로 오리 생산성 향상
- 자조금 조성으로 수급안정 및 소비확대 추진

▷ 꿀벌

- 다양한 밀원 식물 조성 및 관리강화
- 원산지표시 · 품질인증 강화로 시장 차별화

▷ 사슴

- 사슴 개량 및 우수종류 인공수정 확대로 생산성 향상
- 고품질 녹용생산 프로그램 개발

▷ 경주마

- 능력 향상을 위한 종빈마 도입 지원 확대
- 마일본뇌염등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사육단계

- 사육단계 HACCP 도입 및 동물약품 · 사료관리 강화
- 사료공장 HACCP 기준 마련, '06년부터 적용

▷ 도축 · 가공단계

- 도축검사관 · 검사보조원 확충, 운영개선
- 도축장 HACCP 운영수준평가 통한 자원 차별화

▷ 유통단계

- SSOP 의무화 및 HACCP 도입 추진
-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강화 및 자발적 회수제도 정착

▷ 판매단계

-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식육판매업소 신규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입('07년)
- 위생감시원제 도입으로 판매단계위생관리 강화

▷ 신종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 유해물질 위해평가 및 허용기준 신설 · 개선
- 병원성 미생물, 신종 유해물질 등 신속검사법 개발

□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 ▷ 친환경축산 직접직불제 도입·확대
-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등록(05년말까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에 기여
- ▷ 축산분뇨 발생량 감축 등 환경부하 경감
- ▷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체계 구축
- ▷ 축산분뇨 대량수요처 확보 및 액비화 등 기술 개발 촉진
- ▷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경종 연계 강화
- ▷ 유기축산업 기반 구축
- ▷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가축 사육환경 조성 추진

□ 사전예방 위주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

- ▷ 방역규정 이행 확인 강화 및 위반 농가 법적 처분 철저(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 질병비발생지역 인증제의 단계적 적용
- ▷ 질병별 SOP에 의해 발생지 지자체 중심으로 방역활동 전개
 - 광우병·가금인플루엔자 : 발생국 수입금지정책 유지 등 유입차단
 - 구제역 : 국경검역·소독 등 강화로 재발방지 최대 노력
 - 돼지콜레라 : 예방접종 강화·지속실시로 근절 여건 조성
 - 뉴캐슬·부루셀라병 등 : 예방접종으로 발생 최소화

□ 소비자 지향적 선진 유통체계 구축

- ▷ 브랜드육, 포장육, 냉장육, 부분육 중심의 유통 체계 개편
- ▷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정착 및 육류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 생산자 중심 수급관리체계 정착 및 경영 안정

- ▷ 자조금 활성화를 통한 소비홍보 및 자율 수급 관리 체계 정착
- ▷ 전업화에 따른 경영위험의 사전예방 및 경영회생 지원

6. 사료사업지원의 세부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가축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사료 수요량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80년 348만톤에 불과하던 사료수요량이 2002년에는 1,580만톤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사료원료의 높은 해외의존도로 IMF 경제위기, 기후 등 환경변화 등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함을 경험해야 했다. 더욱이 사료에 대한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사료로 인한 광우병 등의 가축질병 발생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 향후 전망과 추진방향

사료 수요는 축산물 수입개방과 환경문제 등으로

◆ 추진일정

	12월(04)	2월(06-08)	8월(09)
① 생산비절감	- 사료원료 구매 및 제조시설 지원 - 할당관세 적용	- 사료원료 구매 및 제조시설 지원 - 할당관세 적용 - 양허 및 기본관세 인하추진	- 사료원료 구매 및 제조시설 지원 - 양허 및 기본관세 인하 - 선별적 무관세화 적용
② 안전성 및 품질관리	- 사료검정장비지원 - HACCP 지침제정 - LMO 사료동물위해성 평가지침 제정	- 사료검정장비지원 - HACCP 및 BSE 예방 시설 지원 - HACCP 운영(임의) - LMO 사료동물위해성평가(임의)	- HACCP 현장적용 - HACCP 시설지원 - LMO 동물 위해성 평가(의무)
③ 질병예방	- 사료검사요령 개정등 제도정비 - 제도시행	- 검사실시 - 검사장비지원	- 검사실시 - 검사장비지원

현행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DDA 협상결과 추가 관세인하로 축산물 수입량은 증가하고, 환경문제 등에 의한 규제강화로 사육두수 증가요인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국제 경기, 환율등락, 기후·환경변화 등은 생산량 감소요인이 되므로 원료공급 및 가격 불안요인은 상시 잠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료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료의 품질 향상,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 힘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가축질병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료의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 세부추진내용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환율변동, 국제곡물가격 및 곡물 생산량 등락 등 다양한 변화에 대비 중장기적으로 사료원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연간 사료원료 총 구매량의 2%내외 수준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제조업체의 연간 사료 생산량과 사료공장 HACCP 도입 여부 등

에 따라 차등지원 될 방침이며, 지원 대상은 사료관리법상의 사료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한다.

▷ 사료 제조시설 지원

국내 부존자원 활용도의 제고와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섬유질사료제조시설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농축협 및 사료제조업체 가운데 사료공장의 HACCP제도 도입과 BSE 예방을 위한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제조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 지원되도록 할 전망이다.

▷ 사료 검사장비 지원

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관리 시스템 내실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우병등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동물성 사료 혼입여부 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사료관리법에 의거하여 사료검정업무를 위임받은 농협과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에 한한다. ⑤